

“나라의 주인은 국민…통치자보다 심부름꾼 원해”

경제·외교 미래 안목 높아야

오병교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현재 경제여건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가 공급과잉에 빠져 있고, 특히 고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선주자 후보들이 모두를 크게 잘살게 해주겠다는 꿈같은 이야기만하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후보자나 정치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경영계가 바라는 다음 대통령은 첫째는 경제를 중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 경제에 대한 미래적 안목이 있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산업 등을 대비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둘째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능력을 구비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등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극복하는 소통과 화합 능력을 가진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바라고 있다.

5·18 문혀진 역사 진실 규명할 때

이기봉 5·18재단 사무처장



진실에 대해 눈감지 않은 대통령, 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5·18 희생자, 피해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80년 5월 이후 37년째 그날의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어줄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이 확정된 이후 선출될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5·18 발포명령자, 암매장지 규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7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5·18 핵심 의혹을 풀어 책임자를 가려내고 진실의 바탕 위에 국론 통합을 얘기하고 미래를 의논해야 한다.

무엇보다 80년 진압과정에서의 발포명령자 색출, 헬기 기총사 등 신군부의 잔학성을 밝히는 게 급선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선출되는 지도자인 만큼 소외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이웃과 시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을 줄 아는 대통령이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부정·부패 이번엔 털고 가자

천성권 광주대 교수



촛불민심은 단순히 대통령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요구다. 호남민심이 바로 이런 촛불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촛불민심의 의미는 또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변화의 요구이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호남의 위치는 현재 변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마땅한 호남출신 대권 주자가 없고 이런 현상은 차기에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호남 유권자들은 그동안 ‘전략적 선택’을 통해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왔다. 전략적 선택도 좋지만 이제는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실용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번 탄핵정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대통령을 호남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다.

오직 국익과 국민 위해 일하길

김의태 올림미디어 대표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그리고 있다.

재앙 앞에서도 정치인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슬픔에 빠진 대통령에게 그의 아내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고 조언한다.

영화 속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편협한 요구를 묵살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세월호가 침몰했고, 그 안에는 아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고 심지어 ‘밖으로 탈출하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오랜 시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목숨을 ‘비선 실세’의 이익보다 아끼는 대통령, 자영업자를 ‘아는 사람의 기업’보다 먼저 챙기는 대통령, 젊은이들의 장래를 ‘비선의 딸’보다 걱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차례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그만’

유양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국가기구(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자치에 완전 위임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GDP 대비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오로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과 단답형 문제풀이만을 반복하고 있다. 어리석은 교육은 이제 그만두고 전인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혁신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배울 따로, 살 따로’가 아니라, 협동과 참여, 체험과 소통을 통하여 지적 역량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함께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르고 참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예술가들 비판 겸허히 수용을

허달용 광주민족예술연합회장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문화예술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철학적 기초를 잡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현 정권은 불통에 문제가 있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인문학적인 사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귀를 막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다.

예술가들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 먼저 생각을 개방하고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한 다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레아만 문화수도의 자격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를 세계 대표 문화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 해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정혜원 조선대 국문과 학생



올해 처음 선거권을 갖는 대학생이다.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실업자 100만 돌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문구들은 청년들의 어두운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

취업준비생들은 꾸준히 스펙을 쌓고 학점관리를 하더라도 취업난에 휩쓸려하고 중·고등학생 상당수가 장래 희망으로 9급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일자리에 해마다 급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졸업 이후가 두렵다.

청년 실업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지금까지 ‘촛불’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에게 간절하게 바랐던 국민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인재 중심 백년지대계 필요

주부 최희연씨



1남 1녀를 둔 주부다. 올바른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올 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에 관심이 많다.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학원 등 사교육을 줄이고 싶지만 우리 아이만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시 위주의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학을 가지않는 학생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 공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을 최대한 살리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초를 다시 세우야 한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는 대통령을 원한다.

학원, 지연 등을 배제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 줄 아는, 해안을 가진 대통령을 보고 싶다.

분열된 시대 통합의 리더십 절실

신영은 건축사무소 사람 대표



대통령이라 하면 응당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만 하여야 한다. 인간은 생계가 해결되고 나면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드라마를 보며 황당해했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더 무섭게 행해졌던 걸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 희망은 움튼다. 인간에게 참한 성정이 있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순수는 희석되고 주장은 동글동글해 지지만, 진실과 순수에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본다.

리더십, 이는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나 싶다. 그 조직의 목표, 책임져야 할 사람들..., 모든 걸 헤아리기 어렵기에 마찰은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진실과 좋은 의도는 어떻게든 그 빛을 발한다.

나는, 이런 대통령을 바란다. 명예를 중요시 여겨 사사로운 사익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익을 위하는 자, 진실이 통함을 실현시킬 분, 갖춰진 전문성으로 크고 작은 각각의 분쟁과 사고를 해결하고 비전을 보여줄 사람, 이런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을 바란다.

고령화시대 ‘노년의 삶’에 관심을

시민 황희숙씨



행정공무원직을 은퇴하고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시민이다.

아이들도 모두 성장해서 결혼했고 2020년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식 ‘노인’이 된다.

나 같이 은퇴해서 살고 있는 세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대통령이 좋다.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가정책, 실버사업 등을 좀 더 늘려 전국 구석구석, 시골 곳곳에 살고 있는 노인들까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갖는 대통령이 있으면 한다. 노인복지관도 많아지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확대하는데 힘을 쏟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또 사회의 여러 세대가 공동체로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마음만은 청춘이다.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컴퓨터, 운동 등 배우며 살고 싶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후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보유분발전소

